

초등학생의 직업역량 육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김장희(金長會)* · 김계현(金桂玄)**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미래 직업역량 육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소재 6개 공립 초등학교 교사 130명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역량 교육의 실태와 그 지도방안 및 직업역량의 내용 영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초등학교에서 직업역량 육성 교육이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직업역량의 내용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현재의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교과 교육과정을 통하여 직업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었다. 직업역량교육에 가장 적절한 지도 시간은 교과수업을 통한 지도이며, 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있어 담임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향후 전문상담교사가 진로업무를 담당할 경우 담임교사와 협력하는 형태로 진로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시기에 육성되어야 할 직업역량의 내용 영역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 향후 교육과정 편성 시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하고 담임교사의 진로지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진로 관련 교사 연수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초등 이외에 중등학교 교사들의 인식도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되었다.

■ 주요어 : 직업역량, 초등학교 교사, 진로교육, 진로상담, 교육과정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과정,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흐름과 더불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직업이 새로 생겨나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했던 직업이 소멸되는 등 직업세계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탈산업사회 즉,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직업세계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급속한 세계화의 조류, 국내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과 맞물려 직업세계의 복잡성과 변화의 폭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들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즉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적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업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은 개인을 넘어서 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도 관련이 있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업 역량 교육의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인이나 국가의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기능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자칫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크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 진로교육 특별히, 초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자아와 일의 세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통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특성을 지녔으며 각자의 적성에 알맞은 진로 계획 수립 및 미래 생활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을(교육부, 1997)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동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시켜 궁극적으로 아동이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에 진로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직업역량 교육은 자칫 경쟁 사회의 성공 지상주의와 이로 인한 이기주의에 편승하기 쉬운 오늘날의 아동들에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며 올바른 진로 의식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직업 역량 교육이 진로 교육에 포함되는 한 부분으로서 필요조건에 해당하며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볼 때(서우석, 2002)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직업역량 교육의 방향이라 할 것이다.

직업역량 교육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 터하여, 급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직업을 통한 만족과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가급적 이른 시기인 아동기부터 직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 각국은 이 같은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직업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역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Sultana, 2004). 미국의 경우, 1991년 노동부 산하에 SCANS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라는 위원회를 발족하여 모든 직업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노력을 진행 하였다. 더불어 ASTD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와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등의 기관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통한 직업역량의 구체적인 영역과 하위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각 주의 실정에 적합한 형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직업역량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진로·직업 관련 연구에 초등학교 교사, 학교 상담 교사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Indiana, Michigan, New York, Wisconsin 등의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O'Neil et al., 1992).

우리나라에서도 역량 있는 인적자원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 12월, 제1차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추진하였고, 계속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인적자원개발 정책과제를 담은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앞서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교육되어야 할 구체적인 직업역량의 내용과 영역에 관련한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서우석, 2002).

직업역량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1996년 신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직업능력인증제'의 제안과 더불어 직업역량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서우석, 2001). 이무근 외(1997)는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역량(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여 직업기초능력의 영역과 각 영역별 수준을 구명하였으며 이어 정철영 외(1998)도 직업기초능력의 영역과 하위 영역을 구명하였는데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의 아홉 가지 영역을 제시하였으며 각 영역마다 관련된 하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정철영 외, 1998). 이것을 바탕으로 정철영 외(1999)는 제7차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153명을 전수 조사하여 직업기초능력과 국민공통교육과정의 연계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들은 학교 교육에서 직업기초능력 즉, 직업역량을 가르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직업역량을 지도할 경우 특정 독립 교과보다는 범교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정진철 외, 1999)에서도 직업역량 교육이 필요하며 방법상으로는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될 필요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직업 역량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관계로 직업역량의

내용 및 영역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구체적,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2002년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전면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에 진술된 목표들 중에서 직업역량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진로 관련 목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더불어 초등 진로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으로 자아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일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인간관계 이해, 일과 직업의 경제적, 교육적 측면 이해 등의 일곱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7). 이것으로 볼 때,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진로와 관련된 인간상, 교육목표 등은 진술되어 있으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직업역량을 위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등의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교사가 재량에 의해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김신호 외, 2001).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직업역량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진로상담 서비스의 경우도 담임교사의 판단과 결정에 그 양과 질이 전적으로 좌우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상담 시간은 5학년 때 학생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진로 희망 사항을 파악할 목적으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개별적으로 물어 그 결과를 단순히 기록하는데 그치는 정도의 면담 시간이 공식적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6학년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동일하게 한 차례 더 반복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의 진로 상담은 사실상 종결된다. 결국, 진로 상담 시간의 확보와 서비스의 수준은 전적으로 담임교사의 의지와 선택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학교상담교사가 초·중·고등학교의 진로업무와 진로교육 및 상담을 전담하며 담임교사, 교과지도교사, 심지어 학부모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미국의 진로 교육 시스템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역량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교육시간 확보 등의 물리적인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교사의 진로 교수 역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자명하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각종 연수 과정에서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에 대한 교육이 간과되고 있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박옥선, 2001; 이교섭, 2001; 임복순, 1999; 정광진, 2002)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연수 과정 자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진로와 관련된 연수나 강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교사들의 진로 교육 관련 정보의 부재와 진로 교수 역량의 약화로 이어져 현장에서 학생

들에 대한 직업역량 교육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 대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들을 보면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봉환 외, 2000; 박상태, 2000;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이와 더불어, 초등 교사들의 진로 의식을 조사한 여러 연구들에서도(김경혜, 2002; 김동숙, 2005; 박옥선, 2001; 이교섭, 2001; 이현림·윤석조, 1998; 이형우, 1997; 임복순, 1999; 정광진, 2002; 최봉애, 2004)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추상적 수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육하는 것인지, 진로교육과 지도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 개념의 수준에서 조사되었으며 더욱이 학생들의 직업역량을 육성하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김경혜, 2002; 김동숙, 2005; 박옥선, 2001; 이교섭, 2001; 이현림·윤석조, 1998; 이형우, 1997; 임복순, 1999; 정광진, 2002; 최봉애, 2004)에서도 직업역량 육성의 개념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단순히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일반적 인식을 조사하는 수준에 한정되었다.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역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정진철 외, 1999) 직업역량의 영역과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에 국한되어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될 지에 대한 적용 방법상의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역량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의 육성 즉, 직업 역량 육성을 전제로 한 진로교육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진로교육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 대신, 직업역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역량의 아홉 가지 영역인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 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이무근 외, 1997; 정철영 외, 1998; 문대영 & 류창열, 1998; 정진철 & 정철영, 1999) 등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역량이 교육될 필요성이 있다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제기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상황에 적합한 직업역량 육성 방안 즉, 직업역량 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역량의 영역과 내용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생의 직업역량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II. 직업역량의 개념과 내용

역량의 개념과 관련하여 Spencer & Spencer(1993)는 역량이란 어떤 직무나 상황에서 준거에 비추어(criterion-referenced) 효과적이고 뛰어난 수행의 기저가 되는 개인의 특성으로 정의하였다(Spencer & Spencer, 1993). OECD는 역량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인지적, 비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가동시킴으로써,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라 하였다(Rychen & Salganik, 2003). 즉, 요구 지향적이고 내적인 정신구조이며 맥락의존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동시에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서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장면으로부터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 소수 엘리트들에게 내재해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Rychen & Salganik, 2001). 즉,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육성 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업 역량’이란 용어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문헌에서 직업 역량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basic skills, common skills, competency, competencies, core competencies, core skills, employability skills, essential skills, generalizable skills, generic skills, job ability, job competencies, job skills, key competencies, occupational survival skills, skills, transferable skills, vocational ability, vocational competence, vocational skills, workforce skills, workplace basics, workplace know-how, workplace literacy, workplace skills, 공통기초능력, 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직업생존능력, 직무능력, 직무수행능력, 직업능력 등의 용어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무근 외(1997)는 이들을 ‘직업 능력’으로 명명한 후, 이것을 크게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은 ‘특정 직종 또는 직업에서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으로, ‘직업기초능력’은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직업기초능력은 ‘대부분의 일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인 반면, 직무수행능력은 ‘특정한 일에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결국 유연성이 요구되는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 할 것이다.

직업능력의 분류와 관련하여 90년대 초반, Custer & Claiborne(1992)과 직업훈련연구소(1990), 이무근 외(1992) 등은 세 가지로 구분한바 있으나 1997년 이무근 외(1997)가 두 가지로 분류한 이후, 국내 문헌에서는(정철영, 1998; 문대영 & 류창열, 1998; 정진철 & 정철영, 1999; 서우석, 2001) 대부분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의 두 가지 분류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연구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점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앞서 언급한 많은 영어 표현들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다면 표현상의 선택의 여지를 좀 더 열어 두고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용어의 사용은 선택의 문제이며 '직업기초능력'은 '공통직업능력' 등과 같이 명명될 수도 있음을 언급한 바와 같이(정진철&정철영, 1999) 본 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라는 표현 대신 '직업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영어의 'competence'가 많은 곳에서 능력보다는 '역량'으로 표현되고 있고, OECD의 정의처럼(Rychen & Salganik, 2001) '역량'의 개념이 '모든 사람이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 최근 OECD를 중심으로 '역량 기반'에 초점을 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업 역량'이란 용어는 '직업기초능력'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한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직업역량의 내용과 영역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에 앞장서 반영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노동부 산하의 SCANS에서 제시한 직업역량의 내용들은(SCANS, 1992) 미국 학교상당 교육과정 구성에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아직 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지만 그간의 연구 중 정철영 외(1998)가 제시한 아홉 가지 영역과 하위 요소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현장 근로자, 고용주, 기업체 대표 등으로 한정되어 수행되었으므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초·중·고등학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직업역량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III. 학교에서의 직업역량 교육

직업역량 교육과 진로교육과의 관계를 서우석(2002)은 상호 보완하는 개념이며, 동시에 범위(scope)상으로는 진로교육이 상위의 개념으로서 직업역량 교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진로교육이 진로인식, 진로 준비, 진로 탐색 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직업역량 교육은 진로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이다(서우석, 2002).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초등학교 진로교육은 주로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한정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국가적 인적자원 개발의 맥락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직업역량 육성 교육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업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상담교사가 주도하고 담임교사가 이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직업역량 교육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미국의 각 주에서 채택하여 진로교육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교육과정은 ASCA(미국학교상담가협회: American Counselor Association)가 1997년 제시한 국가 기준 학교상담 프로그램(Nation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생들이 개발해야 할 지식, 태도와 기술, 역량(competencies)들을 포함하고 있다(Campbell & Dahir, 1997). 즉, 학업발달, 진로발달, 개인/사회성 발달로 구성된 각 영역마다 학년별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기준과 역량(competencies)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로발달 영역은 SCAN(1992)이 제시한 역량의 영역들과, NOICC(국가진로발달지침: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NOICC, 1992). 따라서 미국 초등학교에서의 직업역량 교육은 학교상담교육과정에 의하여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직업역량 교육은 체계적 연구나 국가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1997)에서 제시한 교과 목표와 내용을 정철영 외(1998)가 제시한 직업역량의 아홉 가지 영역과 능력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30개의 목표와 568개 단원이 직업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철영 외, 1999; 서우석, 2001). 목표에 반영된 직업역량의 영역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하지만 일관된 기준과 접근에 의하여 제시된 것이 아니어서 중복하여 제시되거나 누락된 것이 있었다. 따라서 교과별, 단원별로 포함되어 있는 직업역량의 내용들을 재구성하여 수업시간, 재량활동시간, 특별활동 시간 등을 통하여 체계적, 계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직업역량 교육의 방안으로 정철영 외(2000)는 영역별로 관련 교과를 통한 지도와 교과 이외의 활동을 통한 지도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독립 교과 신설을 통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우석(2001)

<표 1>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에 반영된 직업역량의 영역 (단위: 빈도)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계
의사소통능력	2									2	4
수리능력				1							1
문제해결능력	1	1	2	2	1	1	0	1	1		10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1	1	1			3	4				10
대인관계능력		1									1
자원활용능력											0
정보능력			1								1
기술능력						1	1				2
조직이해능력			1								1
계	4	3	5	3	1	5	5	1	1	2	30

주1) 이 자료는 정철영 외(1999)과 서우석(2001)의 연구 결과를 요약 제시한 것임.

은 교과서 내용 분석을 통한 지도방안을 수립한 이후 교과 시간을 통해서 지도하거나 재량활동, 특별활동 시간, 특기·적성 교육 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세영(2001)은 직업기초능력 육성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훈련 방법의 하나로 교과 중심 교육방식 안에서 가르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정철영 외(2000)가 제시한 가칭 “인간과 직업” 과 같은 독립 교과를 통한 지도 방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진로 교육은 ‘진로와 직업’과 같은 독립 교과를 통한 방법, 실과 교과목 같은 특정 교과에 몇 개의 단원을 편성하는 방법, 일반 교과에 통합하는 방법, 교과 이외의 활동을 통한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여기서 독립 교과를 통한 지도를 목적으로 개발된 ‘진로와 직업’ 교과서를 보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세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자아를 성취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실하고 교양 있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그 목표로 기술하고 있어 직업역량을 위한 진로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진로와 직업’은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에 일반선택 보통교과로서 이수할 수 있도록 독립 교과로 편제되어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5, 6학년용이 보급되어 교사들이 참고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02년 5월 현재, 서울지역의 218개 고교 가운데서 7차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을 정식으로 채택한 학교는 18개교에 불과하였다(정철영, 2002 재인용).

교과이외의 활동을 통한 방법도 학교에서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김신호 외, 2001; 박우선, 2001)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직업역량 교육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교사들의 진로 교수 역량이라고 판단된다. 교원 임용 후 진로 교육과 관련한 연수를 받아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는 여러 연구의 결과는(정광진, 2002; 박옥선, 2001; 이교섭, 2001)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이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김경혜, 2002; 김동숙, 2005; 박옥선, 2001; 이교섭, 2001; 이현림·윤석조, 1998; 이형우, 1997; 임복순, 1999; 정광진, 2002; 최봉애, 2004) 진로 관련 연수 기회의 확대 등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 체제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직업역량 교육에 필요한 진로 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진미석 외 (2000)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68%가 진로 지도 업무를 위한 독자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 교사의 대부분은 수업과 진로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계획적이기 보다는 정규시간에 짬짬이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독자부서는 없고 진로 업무 담당 교사를 두어 진로와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 처리 정도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상담교사로 하여금 진로업무를 전담토록 하자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박옥선, 2001; 정광진, 2002; 최동선 외, 2005).

IV.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6년 11월,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지역 규모를 고려하여 대도시에서 2개교, 중·소도시에서 2개교, 읍·면 지역에서 2개교를 임의로 표집 하였으며, 표집된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180부의 설문지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그 중 145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무응답 혹은 불성실 답변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130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130명의 일반적 특징은 <표 2>와 같다.

2. 조사도구

조사 도구의 개발을 위해 국내외 직업역량에 대한 연구 사례를 검토한 후, 정철영(1998)과 정진철 외(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과 연구문제를 참고하여 초등학교에 적합한 문항을 구성하여 예비 조사용 도구를 개발하였다. 조사 도구의 검토 과정에는 초등교사 2인과 교육학과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 (명)	백분율(%)
성별	남	26	20.0
	여	104	80.0
	계	130	100
나이	29세 이하	26	20.0
	30세 - 39세	45	34.6
	40세 - 49세	32	24.6
	50세 - 59세	22	16.9
	60세 이상	5	3.8
	계	130	100.0
교직경력	4년 이하	16	12.3
	5년 - 9년	40	30.8
	10년 - 19년	29	22.3
	20년 - 29년	29	22.3
	30년 이상	16	12.3
	계	130	100.0
최종학력	대졸	110	84.6
	대학원졸	20	15.4
	계	130	100.0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있음	8	6.2
	없음	122	93.8
	계	130	100.0
교내직위	임시교사	3	2.3
	평교사	100	76.9
	부장교사	24	18.5
	교감	2	1.5
	교장	1	0.8
	계	130	100.0
담임학년	1학년	23	17.7
	2학년	17	13.1
	3학년	17	13.1
	4학년	13	10.0
	5학년	28	21.5
	6학년	22	16.9
	교과전담/관리자	10	7.7
	계	130	100.0

박사과정 생 2인이 참여하였다. 이 도구를 이용하여 초등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여기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조사 도구는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교육현장에서의 직업역량 교육에 대한 일반적 의견과 관련한 문항이 8개,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지도 방안과 관련한 문항이 4개, 직업역량의 세부 영역에 관한 문항이 117개,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이 7개이다. 세 번째 부분의 직업역량의 세부 영역은 직업역량의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과 초등학교에서의 지도

필요성 및 별도 교육 과정에 포함할 필요성을 묻는 문항으로서 각각 39개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 참여자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음'의 1에서 '매우 필요함'의 5까지 사이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Cronbach- α) 추정된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 12문항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574로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조사 지역에 따른 학교 간 여건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부분의 직업역량의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967, 초등학교에서의 지도 필요성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978, 별도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성은 .984 등으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PC Win 12.0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직업역량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밝히기 위하여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의 성, 연령, 교직경력, 최종학력, 교내직위 등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p < .05$, $P < .01$ 수준에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표 3>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별 내용

영역	번호	문항 내용	문항수	신뢰도 (α)
직업역량 교육에 대한 일반적 의견	1	▶ 초등학교에서 직업역량 교육의 필요성	1	.574
	2	▶ 초등학교에서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진로 상담의 필요성	1	
	3	▶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직업역량 관련 내용의 정도	1	
	4	▶ 일반 교과에 포함된 진로관련 내용의 직업역량 육성 도움 정도	1	
	5	▶ 직업역량 육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구성의 필요성	1	
	6	▶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필요성	1	
	7	▶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과서 필요성	1	
	8	▶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활용 정도	1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지도 방안에 대한 의견	9	▶ 진로지도 및 진로 상담 업무 담당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	1	
	10	▶ 진로업무 담당 교사의 역할이 진로교육에 도움 되는 정도	1	
	11	▶ 직업역량 교육에 가장 적합한 지도 방안	1	
	12	▶ 전문상담교사의 진로업무 담당 시 바람직한 업무 수행 방식	1	
직업역량의 세부영역에 대한 의견	13	▶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	39	.967
	14	▶ 초등학교에서 교육해야 할 필요성	39	.978
	15	▶ 별도의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	39	.984
계			129	.984

V. 연구의 결과

1. 초등교육현장에서의 직업역량 교육에 대한 일반적 의견

가. 초등학교에서의 직업역량 육성 교육의 필요성

초등학교에서 직업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은 <표 4>와 같이 평균 4.02를 보였고, 60.8%가 '필요한 편이다', 24.6%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직업역량 육성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직업역량 교육의 조기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초등학교에서 직업역량 육성 교육의 필요에 대한 인식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필요하지 않다	N	1	0	1	0	0	1	0	0	1	0	1	0	1
	%	3.8	0	1.4	0	0	1.8	0	0	0.9	0	1.0	0	0.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N	3	5	6	2	0	5	3	0	5	3	5	3	8
	%	11.5	4.8	8.5	3.7	0	8.9	5.2	0	4.5	15.0	4.9	11.1	6.2
그저 그렇다	N	3	7	6	4	0	4	6	0	7	3	8	2	10
	%	11.5	6.7	8.5	7.4	0	7.1	10.3	0	6.4	15.0	7.8	7.4	7.7
필요한 편이다	N	13	66	41	34	4	32	35	12	70	9	64	15	79
	%	50.0	63.5	57.7	63.0	80.0	57.1	60.3	75.0	63.6	45.0	62.1	55.6	60.8
매우 필요하다	N	6	26	17	14	1	14	14	4	27	5	25	7	32
	%	23.1	25	23.9	25.9	20.0	25	24.1	25.0	24.5	25.0	24.3	25.9	24.6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4.02													
표준편차	.80													
χ^2	6.808		3.265			5.547			5.797		1.803			
P	.146		.917			.698			.215		.772			

나. 초등학생들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진로상담의 필요성

초등학생들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해서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표 5>와 같이 응답하여 진로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평균 3.87로서 62.3%가 '필요한 편이다', 16.9%는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하였다. 이는 직업역량 육성을 위해 진로교육 이외에 진로상담의 방법도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단,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비해서 진로상담의 필요성은 그 정도가 다소 약하게 인식되고 있다. χ^2 검증 결과 1% 수준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교사들이 남자 교사들에 비해서 진로상담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초등학생들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진로상담의 필요성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필요하지 않다	N	1	0	1	0	0	1	0	0	1	0	1	0	1	
	%	3.8	0	1.4	0	0	1.8	0	0	0.9	0	1.0	0	0.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N	5	5	7	3	0	7	2	1	7	3	8	2	10	
	%	19.2	4.8	9.9	5.6	0	12.5	3.4	6.3	6.4	15.0	7.8	7.4	7.7	
그저 그렇다	N	0	16	5	11	0	5	8	3	15	1	15	1	16	
	%	0	15.4	7.0	20.4	0	8.9	13.8	18.8	13.6	5.0	14.6	3.7	12.3	
필요한 편이다	N	17	64	43	33	5	31	39	11	69	12	63	18	81	
	%	65.4	61.5	60.6	61.1	100	55.4	67.2	68.8	62.7	60.0	61.2	66.7	62.3	
매우 필요하다	N	3	19	15	7	0	12	9	1	18	4	16	6	22	
	%	11.5	18.3	21.1	13.0	0	21.4	16	6.3	16.4	20.0	15.5	22.2	16.9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3.87													
표준편차		.81													
χ^2		14.231	10.312			8.152			3.001		2.985				
P		.007**		.244			.419			.558		.560			

** p<.01

다. 7차 교육과정에 직업역량 내용의 포함 정도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 직업역량과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3.65로서 56.9%가 '약간 포함됨'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

<표 6> 7차 교육과정에 직업역량 내용의 포함 정도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포함되지 않음	N	0	1	1	0	0	1	0	0	1	0	1	0	1
	%	0	1	1.4	0	0	1.8	0	0	0.9	0	1.0	0	0.9
포함되지 않은 편임	N	3	9	6	5	1	6	3	3	12	0	10	2	12
	%	11.5	8.7	8.5	9.3	20.0	10.7	5.2	18.8	10.9	0	9.7	7.4	9.2
그저 그렇다	N	5	26	17	13	1	12	16	3	26	5	24	7	31
	%	19.2	25	23.9	24.1	20.0	21.4	27.6	18.8	23.6	25.0	23.3	25.9	23.8
약간 포함됨	N	15	59	41	31	2	32	34	8	60	14	59	15	74
	%	57.7	56.7	57.7	57.4	40.0	57.1	58.6	50.0	54.5	70.0	57.3	55.6	56.9
아주 많이 포함됨	N	3	9	6	5	1	5	5	2	11	1	9	3	12
	%	11.5	8.7	8.5	9.3	20.0	8.9	8.6	12.5	10.0	5.0	8.7	11.1	9.2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3.65												
표준편차		.81												
χ^2		.919	2.476			5.091			3.545		.588			
P		.922	.963			.748			.471		.964			

다.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하여 직업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과 더불어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에 직업역량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충실히 교육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라. 일반 교과에 포함된 진로관련 내용의 직업역량 육성 도움 정도

초등학교 일반 교과목 속에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직업역량 육성에 <표 7>과 같이 평균 3.51로서, 59.2%가 '조금 도움이 됨', 26.2%가 '그저 그렇다'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향후 있을 새 교육과정 편성 작업에 이러한 현상의 인식이 반영되어 진로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7> 교과 진로관련 내용의 직업역량 육성 도움 정도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N	1	3	3	0	1	3	0	1	4	0	4	0	4
	%	3.8	2.9	4.2	0	20.0	5.4	0	6.3	3.6	0	3.9	0	3.1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임	N	3	8	8	3	0	4	7	0	10	1	10	1	11
	%	11.5	7.7	11.3	5.6	0	7.1	12.1	0	9.1	5.0	9.7	3.7	8.5
그저 그렇다	N	7	27	23	10	1	20	11	3	31	3	29	5	34
	%	26.9	26	32.4	18.5	20.0	35.7	19.0	18.8	28.2	15.0	28.2	18.5	26.2
조금 도움이 됨	N	14	63	34	40	3	28	37	12	62	15	56	21	77
	%	53.8	60.6	47.9	74.1	60.0	50.0	63.8	75.0	56.4	75.0	54.4	77.8	59.2
매우 많은 도움이 됨	N	1	3	3	1	0	1	3	0	3	1	4	0	4
	%	3.8	2.9	4.2	1.9	0	1.8	5.2	0	2.7	5.0	3.9	0	3.1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3.51													
표준편차	.82													
χ^2	.655	14.849			12.358			3.463		5.747				
P	.957	.062			.136			.484		.219				

마. 직업역량 육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과정 구성의 필요성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직업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표 8>과 같이 응답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다. 즉, 별도의 교과서를 통한 교육보다는 교육과정 속에서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라 하겠다. χ^2 검증 결과 연령별, 교직경력별로 각각 5%와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나이가 많고 교직 경력이 많을수록 직업역량 육성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필요성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즉, 진로교육과정이나 학교상담 교육과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아래 <표 9>와 같이 응답함으로써 필요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교사들이 별도의 교육과정보다는 일반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직업역량 육

<표 8> 직업역량 육성 중심 학교교육과정 구성의 필요성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필요하지 않다	N	1	0	1	0	0	1	0	0	1	0	1	0	1
	%	3.8	0	1.4	0	0	1.8	0	0	0.9	0	1.0	0	0.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N	4	11	13	2	0	13	1	1	13	2	13	2	15
	%	15.4	10.6	18.3	3.7	0	23.2	1.7	6.3	11.8	10.0	12.6	7.4	11.5
그저 그렇다	N	8	27	18	17	0	13	20	2	26	9	26	9	35
	%	30.8	26	25.4	31.5	0	23.2	34.5	12.5	23.6	45.0	25.2	33.3	26.9
필요한 편이다	N	10	56	32	30	4	22	34	10	59	7	55	11	66
	%	38.5	53.8	45.1	55.6	80.0	39.3	58.6	62.5	53.6	35.0	53.4	40.7	50.8
매우 필요하다	N	3	10	7	5	1	7	3	3	11	2	8	5	13
	%	11.5	9.6	9.9	9.3	20.0	12.5	5.2	18.8	10.0	10.0	7.8	18.5	10.0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3.58													
표준편차	.85													
χ^2	5.642		10.670			17.774			4.257		4.434			
P	.228		.031*			0.001**			.372		.350			

*p<.05, **p<.01

<표 9>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필요성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필요하지 않다	N	2	3	5	0	0	5	0	0	4	1	4	1	5
	%	7.7	2.9	7.0	0	0	8.9	0	0	3.6	5.0	3.9	3.7	3.8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N	5	17	12	10	0	11	7	4	16	6	20	2	22
	%	19.2	16.3	16.9	18.5	0	19.6	12.1	25.0	14.5	30.0	19.4	7.4	16.9
그저 그렇다	N	2	25	15	12	0	10	14	3	23	4	21	6	27
	%	7.7	24	21.1	22.2	0	17.9	24.1	18.8	20.9	20.0	20.4	22.2	20.8
필요한 편이다	N	16	53	35	29	5	27	35	7	60	9	54	15	69
	%	61.5	51	49.3	53.7	100	48.2	60.3	43.8	54.5	45.0	52.4	55.6	53.1
매우 필요하다	N	1	6	4	3	0	3	2	2	7	0	4	3	7
	%	3.8	5.8	5.6	5.6	0	5.4	3.4	12.5	6.4	0	3.9	11.1	5.4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3.39													
표준편차	.96													
χ^2	4.609		8.730			11.850			4.040		3.975			
P	.330		.366			.158			.401		.409			

성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볼 수 있겠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사.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과서 필요성

직업역량을 육성함에 있어 기존의 일반 교과이외의 별도 교과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표 10>과 같이 평균 2.96으로 응답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 학교에 배부되어 있는 '진로와 직업' 교과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더불어 직업역량이 일반 교과교육과정 속에서 지도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10>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과서 필요성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필요하지 않다	N	2	9	6	5	0	5	5	1	10	1	10	1	11
	%	7.7	8.7	8.5	9.3	0	8.9	8.6	6.3	9.1	5.0	9.7	3.7	8.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N	8	35	25	16	2	18	22	3	36	7	32	11	43
	%	30.8	33.7	35.2	29.6	40.0	32.1	37.9	18.8	32.7	35.0	31.1	40.7	33.1
그저 그렇다	N	5	20	16	8	1	12	9	4	20	5	18	7	25
	%	19.2	19.2	22.5	14.8	20.0	21.4	15.5	25	18.2	25.0	17.5	25.9	19.2
필요한 편이다	N	10	32	18	23	1	16	20	6	36	6	36	6	42
	%	38.5	30.8	25.4	42.6	20.0	28.6	34.5	37.5	32.7	30.0	35.0	22.2	32.3
매우 필요하다	N	1	8	6	2	1	5	2	2	8	1	7	2	9
	%	3.8	7.7	8.5	3.7	20.0	8.9	3.4	12.5	7.3	5.0	6.8	7.4	6.9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2.96													
표준편차	1.13													
χ^2	.900		7.129			4.879			.935		3.396			
P	.924		.523			.770			.919		.494			

아. 직업역량 교육을 위한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활용 정도

초등학교에 배부되어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활용 정도에 관한 질문에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1.40으로 응답해 거의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2.3%가 '전혀 활용하지 않음', 36.2%가 '가끔씩 활용' 으로 응답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혈을 기울여 좋은 자료를 제작, 보급한다 해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로 교육 관련 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진로교육 시간의 제도적 확보와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진로와 직업' 교과서의 활용 정도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N	17	64	49	31	1	40	33	8	66	15	62	19	81
	%	65.4	61.5	69.0	57.4	20.0	71.4	56.9	50.0	60.0	75.0	60.2	70.4	62.3
가끔씩 활용 (주1회)	N	9	38	21	22	4	16	23	8	43	4	40	7	47
	%	34.6	36.5	29.6	40.7	80.0	28.6	39.7	50.0	39.1	20.0	38.8	25.9	36.2
보통 활용 (주2회)	N	0	1	1	0	0	0	1	0	1	0	1	0	1
	%	0	1	1.4	0	0	0	1.7	0	0.9	0	1.0	0	0.8
자주 활용 (주3회)	N	0	1	0	1	0	0	1	0	0	1	0	1	1
	%	0	1	0	1.9	0	0	1.7	0	0	5.0	0	3.7	0.8
매우 자주 활용 (주4회이상)	N	0	0	0	0	0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1.40													
표준편차	.55													
χ^2	.571		8.218			5.828			7.999		5.419			
P	.903		.223			.443			.046*		.144			

2.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지도 방안에 대한 의견

가. 직업역량 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 상담 업무 담당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

직업역량 육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는 초등학교 업무 분장의 내용상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 업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주체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52.3%가 담임교사가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업무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진로 교육 분야에 있어 담임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확대 강화될 필요성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며 더불어 담임교사의 진로 교육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비율이 35.4%로 나타났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진로교육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규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여 진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12> 진로교육 및 진로 상담 업무 담당자로 가장 적합한 사람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담임교사	N	12	56	39	24	5	31	27	10	58	10	53	15	68
	%	46.2	53.8	54.9	44.5	100	55.4	46.6	62.5	52.7	50.0	51.5	55.6	52.3
부장교사	N	0	1	0	1	0	0	0	1	1	0	1	0	1
	%	0	1	0	1.9	0	0	0	6.3	0.9	0	1.0	0	0.8
전문상담교사	N	10	36	27	19	0	20	24	2	39	7	40	6	46
	%	38.5	34.6	38.0	35.2	0	35.7	41.4	12.5	35.5	35.0	38.8	22.2	35.4
교과전담교사	N	3	10	4	9	0	4	7	2	10	3	7	6	13
	%	11.5	9.6	5.6	16.7	0	7.1	12.1	12.5	9.1	15.0	6.8	22.2	10.0
교감	N	1	1	1	1	0	1	0	1	2	0	2	0	2
	%	3.8	1.0	1.4	1.9	0	1.8	0	6.3	1.8	0	1.9	0	1.5
합계	N	26	104	71	54	5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2.58												
표준편차		1.71												
χ^2		1.774		10.596			14.897			1.161		7.614		
P		.777		.226			.061			.884		.107		

나. 진로업무 담당 교사의 역할이 진로교육에 도움 되는 정도

진로업무 담당 교사의 역할이 진로교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표 13>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 2.88로서 33.8%가 '그저 그렇다', 31.5%가 '도움이 되지 않는 편' 이라고 응답하여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진로업무를 평교사 혹은 생활 담당 부장 교사에게 배정하여 진로와 관련 된 교육이나 상담 및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13>의 결과는 진로 담당자가 진로 교육 및 상담 업무 보다는 행정적인 업무 수행에 치중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그마저도 별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진로 담당자의 역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13> 진로업무 담당 교사의 역할이 진로교육에 도움 되는 정도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N	2	12	6	7	1	6	5	3	12	2	12	2	14
	%	7.7	11.5	8.5	13.0	20.0	10.7	8.6	18.8	10.9	10.0	11.7	7.4	10.8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임	N	10	31	24	16	1	17	23	1	33	8	31	10	41
	%	38.5	29.8	33.8	29.6	20.2	30.4	39.7	6.3	30.0	40.0	30.1	37.0	31.5
그저 그렇다	N	6	38	22	20	2	18	17	9	39	5	35	9	44
	%	23.1	36.5	31.0	37.0	40.0	32.1	29.3	56.3	35.5	25.0	34.0	33.3	33.8
조금 도움이 됨	N	8	19	17	9	1	13	11	3	23	4	22	5	27
	%	30.8	18.3	23.9	16.7	20.0	23.2	19.0	18.8	20.9	20.0	21.4	18.5	20.8
매우 많은 도움이 됨	N	0	4	2	2	0	2	2	0	3	1	3	1	4
	%	0	3.8	2.8	3.7	0	3.6	3.4	0	2.7	5.0	2.9	3.7	3.1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2.88													
표준편차	1.22													
χ^2	4.458		2.792			9.295			1.387		.814			
P	.348		.947			.318			.846		.937			

다. 직업역량 육성에 가장 적합한 지도 방안

초등학교에서의 교과시간 운영상 직업역량 육성에 가장 적합한 지도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

한 조사 결과 <표 14>과 같이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의 48.5%가 ‘교과수업시간을 통한 지도’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일반 교과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표 14> 직업역량 육성에 가장 적합한 지도 방안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교과수업 시간을 통한 지도	N	9	54	32	28	3	24	31	8	50	13	50	13	63
	%	34.6	51.9	45.1	51.9	60.0	42.9	53.4	50.0	45.5	65.0	48.5	48.1	48.5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지도	N	11	21	19	13	0	15	14	3	27	5	26	6	32
	%	42.3	20.2	26.8	24.1	0	26.8	24.1	18.8	24.5	25.0	25.2	22.2	24.6
특별활동 시간을 통한 지도	N	4	21	15	9	1	12	10	3	24	1	19	6	25
	%	15.4	20.2	21.1	16.7	20.0	21.4	17.2	18.8	21.8	5.0	18.4	22.2	19.2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한 지도	N	2	6	3	4	1	3	3	2	7	1	6	2	8
	%	7.7	5.8	4.2	7.4	20.0	5.4	5.2	12.5	6.4	5.0	5.8	7.4	6.2
기타	N	0	2	2	0	0	2	0	0	2	0	2	0	2
	%	0	1.9	2.8	0	0	3.6	0	0	1.8	0	1.9	0	1.5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1.88												
표준편차		1.03												
χ^2		6.294		5.909			5.105			4.239		.850		
P		.178		.657			.746			.375		.932		

라. 전문상담교사가 진로업무를 담당할 경우 바람직한 업무 수행 방식

현재 양성 중에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일선 학교에 정식으로 배치되어 진로를 포함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담임교사와의 바람직한 관계 방식에 대한 질문에 <표 15>와 같이 응답함으로써 ‘담임교사와 함께 협력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것은 위의 <표 12>에서 나타난 담임교사 주도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담임교사가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업무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바,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격 연수, 직무연수 등을 통한 진로관련 연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와의 역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

<표 15> 전문상담교사가 진로업무를 담당할 경우 바람직한 업무 수행 방식

항목	구분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		계
		남	여	20-39	40-59	60 이상	9년 이하	10-29	30년 이상	대졸	대학원졸	평교사	부장교사	
담임교사와의 협력형태	N	14	53	37	28	2	30	30	7	58	9	52	15	67
	%	53.8	15.4	52.1	51.9	40.0	53.6	51.7	43.8	52.7	45.0	50.5	55.6	51.5
담임교사의 컨설턴트 형태	N	4	23	14	12	1	13	8	6	24	3	25	2	27
	%	15.4	22.1	19.7	22.2	20.0	23.2	13.8	37.5	21.8	15.0	24.3	7.4	20.8
담임교사가 책임지는 형태	N	1	4	3	2	0	2	3	0	4	1	5	0	5
	%	3.8	3.8	4.2	3.7	0	3.6	5.2	0	3.6	5.0	4.9	0	3.8
전문상담교사가 책임지는 형태	N	7	24	17	12	2	11	17	3	24	7	21	10	31
	%	26.9	23.1	23.9	22.2	40.0	19.6	29.3	18.8	21.8	35.0	20.4	37.0	23.8
합계	N	26	104	71	54	5	56	58	16	110	20	103	27	13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2.00													
표준편차	1.23													
χ^2	.616		1.058			6.117			1.890		6.833			
P	.893		.983			.410			.596		.077			

로 보인다. χ^2 검증 결과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최종학력별, 교내 직위별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3. 직업역량의 세부 영역별 필요성 인식

직업역량의 각 영역별 내용에 대하여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 초등학교에서의 지도 필요성, 별도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에서 아래 <표 16>와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6> 직업역량의 초등학교 교육을 통한 지도의 필요성 및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과 별도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정도

직업역량 영역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 정도		초등학교에서의 지도 필요성 정도		별도의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성 정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능력	읽기 능력	4.45	.74	4.57	.78	3.52	1.11
	쓰기 능력	4.39	.80	4.60	.71	3.55	1.11
	듣기 능력	4.55	.73	4.68	.63	3.64	1.15

	말하기 능력	4.62	.66	4.67	.64	3.76	1.13
	비언어적 표현 능력	4.37	.76	4.23	.74	3.78	1.05
	외국어 읽기 능력	4.26	.89	3.72	.90	3.47	1.12
수리능력	사칙연산 이해 능력	4.34	.82	4.55	.75	3.35	1.14
	통계와 확률에 대한 계산 능력	4.28	.78	4.23	.80	3.35	1.07
	도표 능력	4.28	.83	4.27	.78	3.38	1.13
문제해결 능력	사고력	4.59	.69	4.59	.67	3.86	1.06
	문제 인식 능력	4.58	.69	4.56	.71	3.92	1.08
	대안 선택 능력	4.52	.80	4.34	.80	3.95	1.09
	대안 적용 능력	4.38	.87	4.27	.78	3.86	1.11
	대안 평가 능력	4.38	.80	4.16	.79	3.80	1.10
자기관리 개발능력	자기 관리 능력	4.55	.80	4.40	.76	4.13	1.04
	진로 개발 능력	4.49	.82	4.20	.87	4.10	1.06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4.55	.79	4.42	.72	4.19	1.05
자원활용 능력	자원 확인 능력	4.37	.84	3.97	.91	3.75	1.11
	자원 조직 능력	4.25	.89	3.86	.97	3.73	1.08
	자원 계획 능력	4.32	.90	3.87	.98	3.74	1.14
	협상 능력	4.37	.90	3.93	.95	3.78	1.11
대인관계 능력	협동 능력	4.67	.60	4.62	.65	4.17	1.02
	리더십 능력	4.54	.65	4.37	.74	4.07	1.03
	갈등 관리 능력	4.58	.66	4.36	.70	4.04	1.05
	협상 능력	4.55	.71	4.22	.76	3.95	1.03
	고객 서비스 능력	4.48	.73	3.92	.87	3.85	1.10
정보능력	정보 수집 능력	4.55	.69	4.32	.72	3.95	1.03
	정보 분석 능력	4.56	.76	4.25	.85	3.96	1.09
	정보 조직 능력	4.41	.84	4.11	.84	3.83	1.09
	정보 관리 능력	4.45	.82	4.10	.85	3.90	1.08
	정보 활용 능력	4.53	.78	4.30	.79	4.01	1.10
	컴퓨터 사용 능력	4.50	.80	4.20	.83	3.98	1.11
기술능력	기술 이해능력	4.20	.89	3.70	.88	3.66	1.03
	기술 선택능력	4.13	.95	3.60	.87	3.62	1.05
	기술 적용 능력	4.19	.90	3.64	.88	3.60	1.09
조직이해 능력	국제 감각	4.33	.89	3.77	.93	3.76	1.06
	체제 이해 능력	4.23	.88	3.60	.98	3.65	1.09
	경영 이해 능력	4.20	.92	3.52	.99	3.58	1.08
	업무 이해 능력	4.30	.88	3.62	1.07	3.70	1.12
계	4.42	0.80	4.15	0.82	3.79	1.09	

1=전혀 필요하지 않다. 2=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그저 그렇다. 4=필요한 편이다. 5=매우 필요하다.

<표 17> 직업역량의 초등학교 교육을 통한 지도의 필요성 및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과 별도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변인별 교차분석 결과 (χ^2 값)

직업역량 영역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					초등학교에서의 지도 필요성					별도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성				
		성	연령	교직 경력	최종 학력	교내 직위	성	연령	교직 경력	최종 학력	교내 직위	성	연령	교직 경력	최종 학력	교내 직위
의사소통 능력	읽기 능력	4.637	4.998	8.681	3.065	5.144	10.52*	1.366	1.631	1.008	2.486	6.270	6.104	11.67	1.299	5.037
	쓰기 능력	7.337	1.930	5.090	4.620	1.438	6.827	3.654	2.493	2.142	2.978	12.52*	7.423	12.90	2.226	3.668
	듣기 능력	2.371	3.545	8.997	.397	1.863	10.56*	4.025	2.976	1.244	1.370	4.184	1.615	5.402	2.014	4.589
	말하기 능력	1.645	5.542	8.681	1.105	3.112	1.606	3.024	.990	2.919	1.536	1.293	2.924	8.368	.748	2.052
	비언어적 표현능력	.647	3.524	6.683	1.609	1.658	.457	3.164	7.753	1.912	1.321	4.719	6.865	14.01	9.569	3.208
수리능력	외국어 읽기 능력	6.327	18.56*	9.625	.897	2.174	6.876	8.033	6.154	3.528	4.487	2.351	11.13	17.80*	4.730	1.343
	사칙연산 이해 능력	5.236	3.764	9.447	1.090	1.283	4.774	3.518	4.383	1.639	3.254	8.921	10.82	12.97	4.587	10.98
	통계/확률 계산능력	1.524	4.996	10.01	1.073	1.498	.930	2.002	5.332	1.771	1.650	6.281	8.557	7.520	8.598	4.443
문제해결 능력	도표 능력	1.358	3.716	7.857	1.816	3.308	.892	5.037	5.848	2.041	2.591	10.24*	8.139	8.289	2.284	4.080
	사고력	.405	6.760	4.336	.511	1.885	.690	7.026	6.273	.936	1.722	1.604	9.399	12.47	4.007	4.604
	문제 인식 능력	.257	9.413	4.552	1.217	1.097	1.308	7.646	3.938	1.415	1.833	5.597	7.279	12.00	2.000	4.864
	대안 선택 능력	2.172	8.423	2.920	.847	1.758	5.939	4.420	3.125	.586	2.820	4.652	7.364	11.04	3.282	5.323
	대안 적용 능력	.773	6.755	1.683	.589	.513	6.977	2.802	4.122	1.029	3.742	1.655	8.398	13.90	1.815	2.774
자기관리 개발능력	대안 평가 능력	1.027	5.804	4.641	.252	.312	5.002	3.132	4.521	1.019	3.266	.198	4.678	10.32	1.094	2.778
	자기 관리 능력	1.532	11.21	4.106	1.106	1.577	1.687	6.580	7.299	2.482	5.542	1.595	4.952	8.968	1.421	2.256
	진로 개발 능력	3.237	10.24	2.057	6.367	1.898	1.618	5.868	4.568	1.731	7.002	1.511	6.628	7.737	5.139	2.445
자원활용 능력	직업가치관과 태도	1.007	2.707	4.650	.669	1.064	2.364	2.844	5.179	2.523	7.487	4.467	5.253	10.02	3.624	3.176
	자원 확인 능력	2.710	5.207	5.631	2.912	3.282	5.897	4.116	5.828	3.499	1.148	1.718	12.37	16.15*	2.749	3.620
	자원 조직 능력	1.257	5.557	6.521	2.456	2.114	8.007	5.507	7.326	2.121	4.073	2.043	9.571	18.74*	4.453	2.852
	자원 계획 능력	2.504	4.730	4.199	1.207	3.649	7.046	4.840	5.399	1.204	2.987	1.263	5.402	11.46	4.452	1.582
	협상 능력	.475	4.467	4.395	2.197	1.496	5.840	11.61	11.41	2.869	4.795	.575	5.406	12.12	2.169	4.817
대인관계 능력	협동 능력	1.306	4.773	.557	.711	4.161	.456	6.771	3.397	.450	.332	4.155	14.51	7.13	1.666	2.566
	리더십 능력	.523	5.337	8.575	1.564	3.176	4.535	1.906	6.057	.777	1.297	3.008	11.17	4.711	3.007	2.054
	갈등 관리 능력	.830	3.242	3.510	3.567	1.367	8.808*	3.748	7.261	2.556	2.440	7.284	12.19	7.128	3.753	3.278
	협상 능력	1.193	2.545	2.043	.777	.810	3.136	1.949	6.600	.533	1.543	5.929	4.444	2.538	1.412	1.962
	고객 서비스 능력	2.830	2.245	3.639	7.881	2.658	6.100	5.912	11.53	3.233	2.588	5.913	3.887	6.905	3.495	4.271
정보능력	정보 수집 능력	2.206	4.034	1.858	2.046	.543	4.292	1.863	4.257	5.486	1.543	5.636	3.520	3.836	3.209	2.167
	정보 분석 능력	6.312	7.503	7.836	5.171	1.075	4.517	4.241	4.731	.735	.738	.447	10.85	6.353	1.080	6.755
	정보 조직 능력	8.516	12.33	15.22	5.491	2.201	6.755	5.757	4.585	2.539	2.443	2.659	5.989	4.838	1.284	2.736
	정보 관리 능력	8.175	8.172	7.983	4.937	1.770	5.244	3.175	3.550	.990	1.456	.748	6.868	3.911	1.066	4.389
	정보 활용 능력	11.07*	4.139	4.308	1.311	.608	4.819	1.782	2.927	1.108	3.876	3.735	10.87	7.779	1.420	4.412
	컴퓨터 사용 능력	6.182	4.096	8.455	3.795	1.931	9.964*	3.714	5.745	.800	3.871	2.215	13.86	7.294	1.926	5.004
기술능력	기술 이해능력	.705	10.40	7.181	6.352	10.82	2.817	6.745	4.845	1.976	1.120	4.051	7.460	5.824	.805	2.019
	기술 선택능력	3.808	12.83	7.638	4.610	5.710	4.668	5.386	3.401	1.976	1.383	5.100	7.481	12.07	.066	3.110
	기술 적용 능력	4.239	14.20	9.331	4.856	8.578	2.791	6.807	6.333	1.810	1.169	5.036	3.632	9.76	3.389	3.576
조직이해 능력	국제 감각	3.911	4.386	8.672	5.168	6.846	5.313	6.214	8.901	1.692	2.722	5.973	3.138	7.767	1.509	4.206
	체제 이해 능력	3.557	5.240	5.522	1.272	8.140	9.398	3.988	9.845	1.692	3.862	4.833	7.387	5.397	.474	5.601
	경영 이해 능력	.324	10.45	8.605	5.907	8.07	5.675	7.825	9.304	3.112	4.283	6.729	5.501	5.272	1.927	1.993
	업무 이해 능력	.649	11.26	11.50	3.299	6.201	4.361	10.91	10.39	1.205	3.264	6.438	5.026	4.726	3.605	5.015

*p<.05, **p<.01

가. 직업역량의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영역별 예상 필요성

직업역량의 각 영역별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표 16>의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이 4.42이고 전체 영역 및 영역별 전체 하위 능력들이 모두 평균 4.0이상으로 나타나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미래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적 기능을 위해서는 모든 영역별 능력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들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χ^2 검증 결과, <표 1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정보 활용 능력과($\chi^2=11.07, p=.026$) 연령에 따른 외국어 읽기 능력($\chi^2=18.56, p=0.17$) 간에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 교사들이 정보활용 능력을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젊은 교사들이 외국어 읽기 능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 직업역량을 초등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의 영역별 필요성

직업역량의 각 영역에 대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표 16>의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이 4.15이고 대부분의 영역은 4.0이상이었으나, 외국어 읽기 능력 3.72, 자원활용능력 3.97, 정보조직능력 4.11, 정보관리능력 4.10, 고객 서비스 능력 3.92, 정보조직능력 4.11, 정보관리능력 4.10, 기술이해능력 3.70, 기술선택능력 3.60, 기술적용능력 3.64, 국제감각 3.77, 체제이해능력 3.60, 경영이해능력 3.52, 업무이해능력 3.62 등은 전체 평균인 4.15 보다 적게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직업세계에서는 이들 모두가 필요한 역량이고 갖추어야 할 능력이지만 적어도 일부 직업역량 및 능력은 굳이 초등학교시기에 교육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시기에 갖추어야 할 직업역량의 영역 선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χ^2 검증 결과,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성별에 따른 읽기 능력($\chi^2=10.52, p=.005$), 듣기 능력($\chi^2=10.56, p=.014$), 갈등관리능력($\chi^2=8.808, p=.032$), 컴퓨터 사용 능력($\chi^2=9.964, p=.041$) 간에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읽기 능력, 듣기 능력, 갈등관리능력, 컴퓨터 사용 능력 등에 대하여 모두 여교사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직업역량을 영역별로 별도의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성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필요성을 영역별로 살펴본 <표 16>의 결과 평균이 3.79로 나타났고 일부 영역에서만 4.0이상을 보였다. 자기관리개발능력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 관리 능력 4.13, 진로 개발 능력 4.10,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4.19, 그리고 대

인관계능력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 중에서 협동능력 4.17, 리더십 능력 4.07, 갈등 관리 능력 4.04 등과 더불어 정보능력 영역에서 정보 활용 능력 4.01을 포함한 일곱 가지 능력에서 4.0 이상으로 그 필요성의 정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표 9>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필요성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교사들은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 구성보다는 현행 교과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여 일반교과와의 통합적인 방식으로 직업역량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표 16>의 결과에서 보듯이,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 능력,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 협동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은 기존 교과에서 지도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표 17>에 제시한 χ^2 검증 결과, 성별에 따른 쓰기 능력($\chi^2=12.52$, $p=.014$), 도표 능력($\chi^2=10.24$, $p=.037$)과 교직 경력에 따른 외국어 읽기 능력($\chi^2=17.80$, $p=.023$), 자원확인능력($\chi^2=16.15$, $p=.040$), 자원조직능력($\chi^2=18.74$, $p=.016$)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쓰기 능력, 도표 능력에 대해서는 여교사가, 외국어 읽기 능력, 자원 확인 능력, 자원조직 능력에 대해서는 교직 경력이 적은 교사들이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소재 여섯 개 공립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존에 수행되어진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들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가(김경혜, 2002; 김동숙, 2005; 박옥선, 2001; 이교섭, 2001; 이현림·윤석조, 1998; 이형우, 1997; 임복순, 1999; 정광진, 2002; 최봉애, 2004) 진로교육의 개념과 내용을 진로 인식 단계 및 초등 진로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영역으로 자아 이해,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일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인간관계 이해, 일과 직업의 경제적·교육적 측면의 이해 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직업역량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진로교육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서 초등 진로교육의 내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진로 인식 단계에서 한 발 나아가 인적 자

원 개발의 맥락에서 진로준비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직업역량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공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직업역량 육성을 위하여 진로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 등의 업무는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유력하였다. 또한, 향후 초등학교 현장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진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도 담임교사가 주체가 되고 전문상담교사와 담임교사가 협력하는 형태로 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의 진로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분장에는 진로업무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 진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교사의 역할이 진로교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진로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앞으로 직업역량 교육의 우선적 조건인 초등 교사들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과정이 집중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연수, 직무연수, 원격연수, 자율연수 등의 각종 연수 과정에 진로 관련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별도의 진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의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진로교육이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김신호 외, 2001; 박옥선, 2001).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도 제안하였듯이(박옥선, 2001; 정광진, 2002; 최동선 외, 2005) 전문상담교사나 진로전담교사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 교사들은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방안으로 재량수업이나 특별활동 보다는 일반 교과수업 시간을 통한 지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진로교육 시간으로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사들은 일반 수업에 진로교육이 보장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는 것 같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연간 재량활동 시간은 68시간(주당 2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특별활동 역시 연간 68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여기서 재량 활동 시간은 사실상 각급 학교의 학교장 교육 방침에 따라 특정 분야, 특정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재량 활동시간에 진로를 주제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한편 특별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역시 진로와 관련한 활동을 하기에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결국,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재량수업이나 특별활동만으로는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일반 교과 교육과정 속에 직업역량 교육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계획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초등 교사들

이 직업역량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교과서를 제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즉, 기존의 교과 내용에 직업역량 육성을 목표로 한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국의 초등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진로와 직업’ 자료집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도의 진로교육 교과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앞에서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별도의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경우 학교에서 그 내용을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려면 별도의 수업시간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업무가 가중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교사들은 가급적 현행 교육과정이나 수업 체제의 틀 안에서 직업역량 교육이 보장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

다섯째, 초등 교사들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직업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특정 직업역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능력, 협동능력, 리더십능력, 갈등관리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이 그것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그런 능력들은 현행 교과를 통해서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행 초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목표에 반영된 직업역량의 영역을 분석한 결과(서우석, 2001) 문제 해결력과 자기 관리 및 개발능력은 매우 강조된 반면,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 이해능력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능력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초등 교사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향후 교육과정 편성 시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 아동의 진로발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차원에서 교사들 간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인식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육성되어야 할 직업역량의 영역 및 능력들의 우선적 규명 과 이후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서 집필 작업 시 전문가들 간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직업역량의 영역들이 교육과정 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종합해 보면, 앞으로의 초등학생의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은 직업역량의 영역과 내용들을 기존의 교과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되 기존 교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역량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필수 요소인 초등교사의 진로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정기적인 진로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각종 교원 연수 과정에 진로교육 과목을 일정 시수 이상 포함하는 등의 연수과정 개편이 요청된다. 아울러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진로 관련 교육과정을 필수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완

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수준에서 육성되어야 할 직업역량의 영역과 내용 요소들이 규명되고 이것이 교육과정 속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효과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직업역량 육성을 위한 진로교육 연구학교, 혹은 직업역량 육성 시범학교 등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및 전국 시·도 교육청 단위로 직업역량 육성 교육을 2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실제 운영해 봄으로써 직업역량과 관련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진로 교육 방안, 교사 교육 등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 대상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소재 6개 초등학교 교사들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초등학교 교사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집대상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함과 더불어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도구로 사용된 직업역량의 영역 및 내용들 가운데 초등학교 수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시기에 육성되어야 할 직업역량의 영역과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 고등학교시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로 논의된 초등 교사들의 진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진로 관련 연수 과정이 초등학교생의 직업역량 교육에 효과적인 내용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교원 연수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예비교사들의 진로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7). 특별활동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별책18.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제2차 국가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혜 (2003). 초등학교 직업관 및 진로교육에 관한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숙 (2005).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상담에 관한 인식과 활동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 정철영 · 김병석 (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신호 · 조봉환 · 김옥환 · 임경희 (2001). 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초등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5(2), 1-32.
- 문대영 · 류창열 (1998). 21세기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충남대학교 공업교육연구소 논문집 제21권 1호.
- 박상태 (2000). 초등학교 진로교육에 관한 교사의 인식 및 지도실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선 (2001).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우석 (2001). 초등학교에서의 직업기초능력 교육방안. 인천교육대학교 과학교육논총, 13(13), 225-246.
- 서우석 (2002). 인적자원개발과 초등학교 진로교육.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5(2), 1-22.
-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4). 학생연구, 38집.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 이교섭 (2001).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근 · 이용환 · 정철영 · 배진한 · 최애경 · 이종성 · 정태화 · 나승일 (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직업교육연구, 16(2), 109-129.
- 이무근 외(199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산업현장 적응능력평가를 통한 직업교육의 개선 방향(교육부 제출용 보고서). 서울: 교육부.
- 이현림 · 윤석조(1998). 초등학교 교사와 아동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 25-54
- 이형우 (1997). 진로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복순 (1999).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세영 (2001). 직업기초능력 육성을 위한 통합적 수행중심 직업능력개발훈련 개념화 시론. *직업교육연구*, 21(1), 77-92.
- 정광진 (2002). 진로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실태 조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철 · 정철영 (1999). 고등학교 교사들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인식. *직업교육연구*, 18(1), 39-57.
- 정철영 (1998). 직업기초능력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의 연계. *교육월보* 7월호(통권 199호).
- 정철영 · 나승일 · 서우석 · 송병국 · 이종성 (1998). 직업기초능력의 영역 분류 및 하위요소 추출. *직업교육연구*, 17(2), 15-38.
- 정철영 · 서우석 · 나승일 · 송병국 · 이종성 (1999). 직업기초능력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의 연계 실태 분석. *직업교육연구*, 18(1), 21-37.
- 정철영 · 서우석 · 나승일 · 송병국 · 강경중 (2000). 초 · 중등학교에서의 직업기초능력 강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19(2), 1-22.
- 정철영 (2002).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운영 체제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진로교육학회지*, 15(1), 1-28.
- 진미석 · 손유미 (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 · 정철영 · 서우석 · 허종렬 · 윤형한 (2005).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지침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초 ·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봉애 (2004).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상담에 관한 인식과 활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사이버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학/진로상담 모형개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1990). 직업훈련 성과 분석 및 평가(연구보고서 90-7). 서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직업훈련연구소.
- Campbell, C. A., & Dahir, C. A. (1997). *The national standards for school counseling programs*. Alexandria, VA: American School Counselor Association.
- Custer, R. L., & Claiborne, D. M. (1992). Critical Skills Clusters for Vocational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17(4): 15-40.
- McNabb, J.C (1997). Key affective behaviors of students as identified by a select group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using the SCANS categories. *Journal of Industrial Teacher Education*. 34(4), 29-41.

- 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NOICC). (1992).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project*.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1). *Knowledge and skills for life: First results from PISA 2000*. Paris: Author.
- O'Neil, H. F., Jr., Allred, K., & Baker, E. L.(1992). *Measurement of Workforce Readiness: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CSE Technical Report 343]*. Los Angeles, CA: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Evaluation, Standards, and Student Test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53 328).
- Rychen, D.S., & Salganik, L.H. (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Germany: Hogrefe & Huber.
- Rychen, D.S., & Salganik, L.H.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Germany: Hogrefe & Huber.
- Secretary's Commission on Achieving Necessary Skills (1992). *Learning a living: A blueprint for high performance: A SCANS report for America 2000*.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Labor.
- Spencer, L.M., Jr., & Spencer, S.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 Sultana, R.G (2004). *Guidance Policies in the knowledge society: Trends, challenges and responses across Europe. a Cedefop synthesis report*.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European Communities.

* 논문접수 2007년 5월 11일 / 1차 심사 2007년 7월 16일 / 2차 심사 2007년 8월 28일

* 김장희: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학교상담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과정 재학 중이다.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중이다.

* e-mail: kim7@snu.ac.kr

* 김계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오리건 대학교(U. of oregon) 상담심리학과에서 박사(Ph.D.)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카운슬링의 실제,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 연구,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등이 있다.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교수이다.

* e-mail: kayhkim@snu.ac.kr

Abstract

Perception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Fostering Vocational Competencies of the Elementary Students

Kim, Jang-Hoi* · Kim, Kay Hy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fostering key competencies needed for the workforce. The survey was conducted onto 130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re working in Seoul, Kyung-Gi, and Kang-Won province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chool career guidance and the perception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garding i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owed significant agreement on the necessity of the education of key competencies needed for the workforce from the elementary school periods. Second, they preferred curriculum based education of the key competencies to educating it through a separate curriculum. Third, the most ideal way of teaching the key competencies was to educate it with the integrated curriculum types. Fourth, they thought they should be in charge of delivering the career guidance to students. In addition, they wanted the perspective school counselors just to support themselves in delivering the career guidance instead of taking the roles over from them. The respondents perceived all the key competencies presented in this study had values in terms of preparing future occupations. However, some of the key competencies such as the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area did not need to be educated in Elementary school levels. Further study is strongly recommended to find out the most adequate key competencies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key competencies needed for the workforce, elementary school teacher, career education, career guidance, curriculum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